

“지방대학 취업난 개선 도움 될 것”

원광대 경영학부, 선배 통한 인큐베이터형 일자리 창출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인큐베이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인큐베이터형 일자리는 입사 전에 동문 선배로부터 사전교육 및 조언을 받아 회사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원광대 경영학부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하이파컴 및 ㈜도양과 경영학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영학부 및 참여기업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체 방문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등 산·학 협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경영학 전공자 및 복수 전공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업체에 적합한 인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가운데 현대해상 전속 법인 ㈜하이파컴 최광철 대표와 ㈜도양 김기웅 대표를 비롯해 이동녕 경영학부장, 경영학부 교육과정위원회 박성태 위원장, 학부 교수 등 교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김기웅 대표는 “6년 전 선배들에게 받았던 멘토링을 베풀 기회가 왔다”며, “후배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광철 대표도 “이 프로그램이 시작도 못 하고 좌절하는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며, “선배가

학창시절 갖고 있던 꿈을 실현했듯이 후배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꿈을 꾸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학부 교육과정위원회 박성태 위원장은 “경영학부는 2012년부터 취업지원 일환으로 봉황꿈멘토링 사업을 전개해 동문 선·후배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후배들이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고, 선배를 통한 일자리 찾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배 도움을 받아 배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지에 맞는 업체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로 발전시켜 지방대학의 취업난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영학부 나광진

진로기획교수는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인큐베이터형 일자리를 전공별로 확장할 예정”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현재 비교과과정으로 시작했지만, 협의를 통해 학점인증제로 구축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산·학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현재 국내 경영학 전공이 설치된 100여 개 대학 중 25개 대학만이 (사)한국경영교육인증으로부터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가운데 원광대 경영학부는 전라·제주권 사립대학 최초로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포함) 경영학교육 5년 재인증을 받았다.

/익산=우병희 기자



호원대학교가 정년· 명예퇴직 교원들의 퇴임식을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원대, 2018 하반기 정년· 명예퇴임식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는 8월 31일자로 정년· 명예퇴직 교원들의 퇴임식을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다.

29일 교원 명예퇴임식에는 이달 말 명예퇴직하는 조남기 교수(경영학부), 김정훈 교수(교양과), 황현라 교수(법경찰학부), 허정식 교수(스포츠경영학부), 한광희 교수(컴퓨터게임학부), 강태구 교수(행정학과) 등 6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진행하였으며, 30일 교원 정년퇴임식에는 31일자로 정년퇴임하는 김천수 교수(건축학과), 오준근 교수(경영학부) 등 2명 및 가족과 동료 교수들이 참석해 정년퇴임식을 진행했다.

이번 퇴임식은 지난 약30여년의 재직기간동안 분교에 근무하며 다수의 보직 및 행정·사무직책을 맡아 책임감을 갖고, 학교발전에 기여하며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퇴임식은 퇴직교수들의 공로상

수여 및 명예교수 추대 등 차례로 진행되었다.

퇴임식 행사에 참석한 강희성 총장(호원대)은 송공사에서 “지난 30여 년간 오랜 세월을 학교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퇴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많은 바 소임을 다하신 교수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며 아쉬움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퇴직 교원들은 “호원의 동지를 사랑했고, 호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비록 몸은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호원의 캠퍼스 속에 남아 함께 할 것이다”라며 퇴임사를 밝혔다.

이날 퇴임식 후 그동안 함께한 교수들은 그동안 함께한 교수들과 점심식사를 가졌으며, 강희성 총장은 퇴직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퇴임을 축하하고 아쉬움을 나누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서 대통령표창 수상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협력분야 산학연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술협력분야 산학연 정부포상은 400여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엄중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전주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전주대는 교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동기기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불적·지적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발전을 돕고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 42건을 출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기술지도 253건, 상품화

사업화 기술지원 33건 등 지속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살면, 청년이 살고, 결국 지역이 살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9월 1일까지 코엑스 C홀 산학연협력관에서 소방 드론, 텃밭관리용 팜봇, VR 기기 등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개발한 우수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회 외에도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컨퍼런스, 기술보호 컨퍼런스 등 기술 세미나와 투자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전주대가 기술협력분야 산학연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치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IP투자유치 로드쇼’, IPO·M&A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대입 수시지원 앞두고 진학상담실 운영

내달 7일까지 상담서비스 5개 교육지원청 주말 상담

전북도교육청은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9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말 없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수시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 개인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도교육청 7층 대입지원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표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대입진학지원단 소속 학교 현장 교사 40여명을 윤번제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9월 3~7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 상담을 진행 하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9월 1일과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상담실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전 예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중심의 수시 진학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고3

진학부장 및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했으며, 수시상담은 먼저 소속 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상담을 기초로 이번 수시 대면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6개 대학(4년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추가합격 포함)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하고, 대학별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시간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인사혁신처 위탁

수험생 알권리 충족·예산 절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문제출제는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본부가 주관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탁해 왔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문제 출제 위탁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과목이 현행 15과목에서 27과목으로 대폭 확대돼 수험생 알권리가 향상되고 전국적으로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가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